

## 도심 속에서 만난 자연 속의 나

최은서

### 골목 속에 피어난 꽃과 나

거리를 걸어가다가 피어난 민들레를 볼 때마다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다.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결국엔 꽃을 피워내고 아름답게 빛났다. 꽃은 비바람을 견디고 해의 따스한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꽃을 보면 나와 같다고 생각난다. 꽃이 피어나는 것까지도 말이다. 사람도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을 꽃으로 피어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람마다 꽃을 피워내는 시기가 다르지만 나는 늦는 편이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꽃을 피워내는 건 쉬운 게 아니라 수많은 열정과 수많은 노력, 시간이 들어가야 아름답지만 단단한 꽃을 피워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꽃처럼 단단하고 강한 식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꽃들이 이 시련들을 넘어서 피워냈다는 걸을 알기에 더 강인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 강인하다는 건 겉모습이 단단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외면보다 내면이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때 강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그 강인함을 가지기 전에 나는 안 돼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그 노력들이 나중에 자신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지금 하는 것들과 배우는 것들이 지금은 의미 없고 재미없을지라도 버티고 성장한다면 나중에야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을 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야 깨달을 것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산책을 하면서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한 번 보는 건 어떨까? 지금 피어있는 꽃들도 그 지루함을 견디고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었을 테니까.

### 도심 속에서 만난 생명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 봐도 도심 속에서 하천에 사는 어류는 인공 공원을 만들면서 붕어를 데려와 풀어놓는 것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어릴 때

공원에서 올챙이를 봤던 것이 전부였다. 도심 속에서 물고기를 만난다는 건 이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곤충이나 식물은 길거리에서 볼 수 있어도 어류는 볼 수 없다. 한 편으론 그리웠다. 어릴 때 공원에서 올챙이를 잡고 놀았던 추억이 지금도 몇 안 되는 행복한 추억 중에 하나다. 이런 추억들을 지금 아이들은 즐길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뿐이다. 아이들이 자연과 같이 자랐을 때와 아닐 때가 확연히 갈린다. 물론 나도 자연이랑 가까이 지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밖으로 나갔을 때 위험함이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못 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자연을 보면 설레고 한 편으론 씩씩하다. 자연의 위대함과 풍요로움이 나를 가득 채워주고 안아준다. 자연을 볼 때 위대함에 압도당한 적도 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높은 산이 드넓은 하늘이 나를 압도했다. 그때의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고 해서 표현이 될지 모르겠다. 이걸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을 좋아하는 나는 이제 자연을 감상할 곳이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웠다. 공원까진 아니지만 산책로가 있어서 가보면 잘 되어있다. 걸어 다니다가 힘들면 쉴 수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공기도 좋고 자연이 나를 반기는 곳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섬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아침에 새가 우는소리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개울에서 1급에서만 살고 있는 어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정말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자연을 감상하기 좋았다. 자연은 우리에게 항상 베풀고 모든 걸 내어주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을 이용하고 파괴하고 자신이 이익이 되는 대로 사용했다. 공존이라는 단어는 지금 사용해야 하는 것 같다. 자연은 이미 많은 곳이 파괴됐고 한계였다. 사람들은 아직도 자연을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자신의 대까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미 망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직접 깨닫지 못하는 이상 고칠 수 없다.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그랬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저 자연에게 미안할 뿐이다. 이젠 새들도 보기 힘들다. 흔하다고 생각했던 비둘기마저도

## 자연의 공간과 나

공원을 걷어가다 하늘을 본 적이 있다. 나뭇잎들 사이로 햇살이 나를 비추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본다. 광활한 하늘이랑 같이 어울리는 구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던가? 잘 때 듣는 풀벌레 소리도 정말

좋았다. 풀벌레들이 아름답게 연주하는 하모니에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자연 생태공간이 내 주위에 얼마나 있냐고 물어본다면 2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은 딱 2곳 있다.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둔 곳 벚꽃이 3월에 피어서 다녀왔는데 벚꽃들이 휘날리는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 자연을 감상할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은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강아지도 구경하고 새가 우는소리도 듣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 힘들 때 자주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자연이 나를 위로해 준다. 자연이 해주는 위로를 받고 오면 한결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우리나라도 자연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소리,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 강아지는 급하게 가는데 주인이 못 따라오자 쳐다보는 모습까지 이런 모습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자연의 소리를 한 번 듣고 나면 항상 가지고 나가던 에어팟을 두고 자연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선선한 바람이 좋다. 선선하게 들어오는 바람과 따뜻하게 비춰주는 햇살과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지친 나를 이끌고 자연과 함께 있다 보면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져간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벤치에 앉아있으면 정말 좋았다.

순수한 자연을 보고 느끼고 싶을 때는 자연을 찾아가도 되지만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공간을 찾는다면 공원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자연을 느껴도 좋을 것 같다.

도심에서 살다가 힘들 때 한 번쯤은 당신도 자연의 위로를 받고 마음을 채워갔으면 좋겠다.